

TV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0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풀리퀘 소+	30 KBS 뉴스	00 TV소셜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토크쇼생황제	40 결혼이야기(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예코 아일랜드 제주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다큐멘터리 3일(재)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10 KBC 생활뉴스 30 한국의 맛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 뉴스 45 닥터 365 55 화집(재)
1 김부정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20 헬로키티 공룡이 살아있다(재)	55 날씨와 생활
2 50 직언직설	00 시간여행자 K(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주적 60분(재)	05 내꺼야 풀록 30 동물가족 체험기 와이드패밀리(재)	0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동행(재)	4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통일전망대	00 SBS 뉴스 10 겨울방학특선 특집다큐 대안학교를 돌아보다
4 00 정용관의 시사방법	00 KBS 뉴스 4 10 다크 공강(재)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40 TV 유치원 콩다콩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튜디오 30 내마음의 크리스마스 스페셜
5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꼬마기자 추추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파라이드 15 KBC 8 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시사현장 55 집중인터뷰 이사람	50 일일 드라마 <불굴의 차여사>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지 따따따 20 일일 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결혼이야기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SBS 뉴스스토리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월화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월화특별기획 <빛나거나 미치거나>	00 SBS 대기획 <편지>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00 KBS 뉴스라인 40 생생최전선	10 우리동네 예제능	15 PD수첩	15 토크마이트
12 10 나는 몸신이다(재) ①:20 채널 A 일요기획(재) 50 먹거리X파일(재)	30 독립영화관 <후유증>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글로벌리퀘스트 쇼 ①:30 영상앨범 산	10 MBC 뉴스24 20 특집 MBC 100분 토론 ①:45 유리집에 연애인이 산다	35 나이트 라인 ①:05 자기야(재)



“비열하고 야비한 지식인 까발리기 남다른 관찰력 덕분”

SBS '편지' 조강재 역 박혁권

의사, 변호사, 검사, 교수... 모두가 선망하는 우리 사회 최고 지식인 계층이다. 배우 박혁권(44)이 최근 3년간 잇달아 맡은 배역이기도 하다. 그런데 좀 다르다. 지식인이라고 다 같은 지식인이 아니다. 박혁권이 연기하는 지식인은 모두 우리의 환상을 깬다. 기존 드라마가 그리던 지식인의 전형에서 벗어나는.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현실성을 강하게 띤다. 환상을 걷어낸, 지금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지식인의 실체를 까발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주 정밀하게.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탄현SBS 제작센터에서 박혁권을 만났다. 화제의 드라마 SBS TV 월화극 '편지'에서 야비하면서 도 낙약한 조강재 검사를 아주 맛있게 연기하고 있는 그가. "조강재는 이태준(조재현 분) 검찰총장 말고는 다른 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인간이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좁아서 자기편만 챙기죠. 주도면밀하거나 담대하거나 심지어 굳은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태준이 데리고 있느냐? 좀 정중하든 충실한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주인은 안 몰랐어요.(웃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꼭 인간이 해야하는 일들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집거나 계란을 안 깨뜨리고 옮기는 작업 같은 것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은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태준은 조강재가 그런 용도로 필요한 겁니다."

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노인이라 조강재라면 이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작가님도 처음부터 조강재에 대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대놓고 악인'이라 생각하라고 했어요."

박혁권의 이러한 지식인 까발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TBC '밀회'(2014)의 강준형 피아노교수과 '내안의 자적'(2012)의 조현태 변호사가 있었다. 이 두 역할 역시 그는 정밀 타법으로 연기해냈다.

박혁권의 "주변에서 맛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웃었다.

"사람들이 좁자는 거 보면 사실 좀 웃겨요. 마흔 넘으니 웬만한 사람은 다 속이 들여다보이는데 품을 잡으면 우습죠. 오히려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무섭죠. 조강재처럼 자적지심이 있는 캐릭터는 연기하기가 편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바운더리가 확실한 인간이잖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 2007년 '하얀거탑'에서는 의사, 2011년 '뿌리깊은 나무'에서는 집현전 학자 정인지를 연기한 그는 "나는 대학도 간신히 들어갔는데 엘리트 연기를 잇달아 하니 신기하다. '하얀거탑' 때 의사 역할이라고 하나 친구들이 '원자 해야 할 놈이 의사란다'며 배꼽잡고 쓰러졌다"며 웃었다.

"배우를 꿈꾸지는 않았는데 중학교때부터 연극을 보러다니긴 했어요. 보는 것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사람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산만하게 보였죠.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쳐다봤고, 20분 걸릴 하교길을 여기저기 구경하고 오히려 1시간 걸려 돌아왔으니까요."

극단에 들어간 이후 1994년 서울예대에 뒤늦게 입학한 그는 1년간 연극포스터 붙이는 작업을 거쳐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관찰력'은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연기의 밑바탕이 됐다.

"제가 천생 배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기 잘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 좋게 좋은 작품들을 잇달아 만났고 자연스럽게 하려는 제 연거스터일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4년 전 할리우드 진출이 꿈이었고 그랬던 그는 이날도 "그 꿈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아편다는 사시를 합격해 검사가 됐지만 조강재라는 인간의 실체는 안스러울 정도다. 편법, 불법을 일삼고 능력은 모자라는데 질투심은 엄청나다. 뇌종양의 고통으로 연일 사선을 넘나드는 후배검사 박정환(김재원)의 몸부림을 대놓고 즐기는 사악함과 궁지에 몰리자 그런 박정환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비굴함이 공존한다.

"솔직히 7~8부에서 좀 힘들었어요. 박정환에게 '정환아 많이 아프냐? 막 비명도 나오고 그래'라며 야비하게 조롱하는 장면을 연습하면서 인간 박혁권으로서 슬펐어요. 아무리 적이라도 인간인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올 수 있을거 같았죠. '빨리 죽어라' 고사를 지내는 거 같았어요. 하지만 한쪽으로 갈 때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부모광장)	15:00 신나는 요정 학교	19:30 EBS뉴스
05:40 성공 인생후반전	10:10 EBS 특강	15:15 지구를 지켜라	19:50 극한집안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4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올리비아	20:40 다크 오늘
07:00 코코몽(재)	11:1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피터 래빗	20:50 세계대마기행 <황금의 나라, 미안만>
07:15 놀이터 구조대 보이(재)	11:20 세계대마기행 <베트남 손수를 만나다>(재)	16:00 당동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겨울제주>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6:20 놀이터 구조대 보이	21:50 EBS 다크프라임 <신년특집 생존의 비밀>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서울인문포럼2015	16:35 오스카의 오아시스	22:45 화해 프로젝트 용서
08:00 당동명 유치원	13:1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6:45 곰피와 친구들(재)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렌조트리테일 습지대>
08:20 두다다(재)	13:3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5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08:50 곰피와 친구들	14:10 스포츠 웨어아 놀자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9:05 윈더볼츠(재)	14:30 부릉! 부릉! 부릉미즈	17:45 두다다(재)	
09:20 출동! 슈퍼원즈(재)	14:45 코코몽2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	24:05 지식세상(재)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9:00 지파이터스	24:10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2016 수능열기 <유승현, 윤선영의 국어>	12:1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00:50 " <오광석의 수학 I>	13:05 " <윤정환의 영어>
01:40 " <오랜지의 영어>	14:00 <고등예비과정 <김소연의 수학II>>
02:30 수능김집이<문학>	14:50 " <추혜연의 영어>
03:20 " <수학 I>	15:40 2016 수능열기 <오랜지의 영어>
04:10 " <미적분과 통계기본>	16:30 " <유승현, 윤선영의 국어>
05:50 " <영어특해 유형>	17:20 " <오광석의 수학 I>
06:40 " <박근영의 미적분 I>	18:10 <고등예비과정 <장동진의 국어>>
07:30 " <차현우의 미적분II>	19:20 " <최은진의 수학 I>
08:20 "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20:00 " <김소연의 수학II>
09:10 " <독서와 문법>	20:50 " <추혜연의 영어>
10:00 <고등예비과정 <장동준의 국어>>	21:50 수능김집이 <구명석의 확률과 통계>
10:50 " <최은진의 수학 I>	22:5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23:00 2016 수능개념 <추혜연의 영어>

EBS플러스2

07:00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5년 겨울방학생활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K팝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08:30 검정고시교육 강좌	16:50 한자교육 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법>
09:00 출제문 수학 EBS MATH	17:20 백점공략 중학수학2 <국어①②>
09:10 TV 중학 <수학1(1상)>	18:00 TV 중학 <국어⑤⑥>
09:50 " <역사2>	18:40 " <수학3(상)>
10:30 " <역사2>	19:20 필독 중학 한국사
11:10 " <국어③④>	20:00 EBS 기획특강 <영어3>
11:50 " <수학2(2상)>	22:00 중학 학습비법특강 <영어3>
12:30 실전 취업가이드	22:40 " <국어⑤⑥>
13:10 중학 학습비법특강 <수학1>	23:20 필독 <사회1>
13:50 " <수학2>	24:00 왕기초 중학 <수학2>
14:30 " <사회2>	
15:20 초등 1년 겨울방학생활	
15:40 초등 3년 겨울방학생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7일(음 12월 8일 癸卯)

子 48년생 귀인과 소중할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60년생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72년생 잃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도 있는 양상이다. 84년생 중차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59, 51	午 42년생 미흡함이 보이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 해야겠다. 54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66년생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절실하다. 78년생 쉽게 보았었다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31
丑 49년생 어슬프게 대하면 여러 가지 단처가 드러날 수다. 61년생 소인 사상이 아니라면 관여할 필요가 없느니라. 73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85년생 성취로 인해 희색이 만연하겠다. 행운의 숫자 : 52, 69	未 43년생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다. 55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67년생 적극적으로 응해 줘야 할 때다. 79년생 신숙한 대응 조치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2, 43
寅 38년생 주관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일이다. 50년생 정예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다. 62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라. 74년생 관점을 달리해보자. 86년생 사소한 장애 요소는 개의치 말자. 행운의 숫자 : 65, 82	申 44년생 구태의연한 인습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켜 볼 일이다. 56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68년생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80년생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0, 23
卯 39년생 빈틈이 없어야겠다. 51년생 스스로 해결될 것이니 조바심을 버리고 잠자코 있어야. 63년생 다소 생소할 것이다. 75년생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켜서는 아니 된다. 87년생 사회적 통념에 비취보자. 행운의 숫자 : 08, 36	酉 45년생 그대로 놔두면 매우 후회할 것이다. 57년생 과욕을 부린다면 무리가 따르리라. 69년생 기존의 정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변경되는 판국이다. 81년생 결과로 인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한 후에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63, 75
辰 40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리라. 52년생 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64년생 처음처럼 깔끔하게 해 나가지 않으면 부실해지기 쉽다. 76년생 선행을 하고도 빛을 보지 못할 수이다. 행운의 숫자 : 30, 04	戌 46년생 상대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58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담하고 있는 판도이다. 70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82년생 분명한 형식을 갖추어서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8, 83
巳 41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53년생 놔두자니 거주장소롭고 버려지나 아까울 것이다. 65년생 가운데에 끼어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77년생 계획을 세우고 나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행운의 숫자 : 37, 09	亥 47년생 속마음을 이해해 줄만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59년생 발언하기 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라. 71년생 이 번에 제게해 버려야 후환이 없다. 83년생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1,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령” ☎010-9790-8237

욕망의 화신 ‘레나 정’ 기대해주세요

김성령, MBC 새 주말극 ‘여왕의 꽃’ 주연

배우 김성령이 MBC TV 새 주말극 '여왕의 꽃'의 타이틀 롤로 캐스팅됐다. MBC는 "전설의 마녀" 후속으로 오는 3월14일 시작하는 '여왕의 꽃'의 남녀 주인공으로 김성령과 이종혁을 캐스팅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왕의 꽃'은 아망으로 가득 찬 여자와 그녀가 버린 딸이 재회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라고 MBC는 설명했다. 김성령은 세프이자, 스타 MC인 레나 정을 연기한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공만을 위해 질주한 욕망의 화신이다. 이종혁은 TNC그룹의 장남이자 이 회사 외식 사업부 본부장 박민준으로 분한다. 레나 정이 버린 그의 딸 강이솔 역은 SBS '괜찮아 사랑이야'로 혜성처럼 등장한 모델 출신 이성경이 연기한다.

“이용관 BIFF 위원장 사퇴 중용 철회하라”

<부산국제영화제>

영화단체 “다이빙벨” 상영 보복... 영화계 독립성 해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 등 영화단체들이 26일 부산시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 사퇴 권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퇴 중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협과 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2개 영화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이 위원장 사퇴 권고가 '다이빙벨'을 상영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0월 제19회 BIFF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작품”이라며 상영 취소를 요청했으나 BIFF는 '다이빙벨'을 예정대로 상영했다. 이후 지난달 부산시는 BIFF 조직위 감사를 벌였으며, 최근 부산시 고위관계자가 초창작 선정 관련 규정 위반 등 19개 지적사항을 이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후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영화단체는 성명에서 “정당한 영화제라면 정치인이 작품 선정에 관여할 수 없다”며 “프로그램의 작품 선정 권한을 보장하는 것은 영화계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BIFF가 지난 19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급성장한 것은 이런 원칙이 지켜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이 위원장 한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영화계를 검열하려는 숨은 의도는 결국 영화계의 독립성을 해치고 19년을 이어온 BIFF의 정체성과 존립마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1996년 영화계 출범 당시 수석프로그램매출인 이 위원장은 부집행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을 거쳐 2010년 집행위원장이 됐다. /연합뉴스